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54년

2025년 1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편집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인쇄인 : 배성한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13호

창교절 유시문



종령 지성 대종사

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에 매진한 결과 『불설대승장엄보 왕경』과 『칠구지불모대다라니경』 등에 육자대명왕진언과 준제진언이 설해진 것과 『현밀 원통성불심요집』에 밀교 의궤 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를 직접 수행으로서 검증 하셨습니다.

생활불교로 정통 밀교 종단을 구현하고자 하셨던 원정 대성사님은 바르고 참된 생활 자체가 곧 불공이므로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을 염(念)하고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을 종단의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창교절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우리 총지종을 더욱 큰 종단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짐 하며,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4년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종령 지성 합장

법음으로 하나 되는 환희의 한마당 열다

운천사 합창단 제1회 ‘부림합창제’ 개최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단장: 조정애)이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창원 문화원에서 처음으로 ‘부림합창제’를 개최하고 법음으로 종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주교 우인 정사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이 작은 합창제가 우리 가슴에 희망이 되고, 용기와 화합과 즐거움이 되고, 나아가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2면



2025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성료

한국밀교학회(회장 정법 정사)가 ‘2025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11월 1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개최했다. ‘불교의 이제설과 이사, 그리고 체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등 스승과 학회 관계자 등이 동참했다.

종/조/법/어

부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이요
경(經)과 법(法)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심이라

지면 안내

6,7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8,9면 왕생법문 - 행원심 전수

총기 54년 창교절 기념법회 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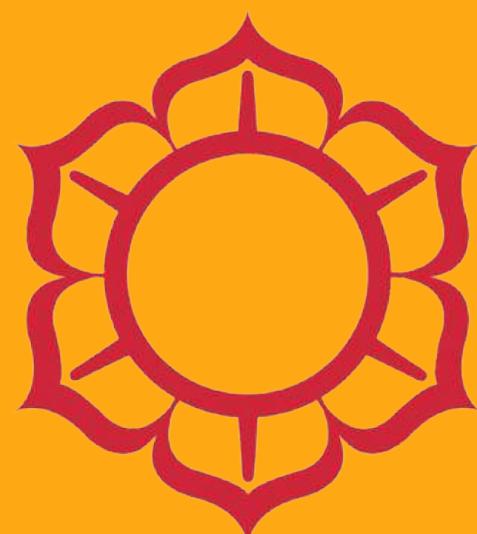
일시 총기 54년 12월 24일(수)

장소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 격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록경 정사와 상임이사 덕광 정사가 11월 11, 12일 이틀 간 재단 산하 기관을 모두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시설 방문에서 이사장 록경 정사와 덕광 정사는 시설 곳곳

을 안내받고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해 상세히 들었다. 록경 정사는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힘쓸 것을 당부했으며, 시설 이용자들과도 만나 개선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석관실버복지센터 체력단련실

법계월 스승 열반 1주기 추선불사



법계월 스승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11월 21일 총지사에서 염수됐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유가족,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참자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법계월 스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마니함창단(단장: 김은미)도 음성공양으로 스승의 숭고한 삶을 기렸다.

법계월 스승은 효강 대종사의 부인이자 도반으로 중생 제도와 교화 발전에 한평생 매진했다.

객석 가득 채운 불음의 대향연

부림합창단, 11월 19일 창원문화원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어머니 되어/ 무한한 자비로써 감싸안아 주신다 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부림합창단의 고운 하모니로 ‘어머니 관세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숨죽이며 노래를 감상하던 청중은 환희심에 가득 찬 박수로 ‘옴마니반메

훔’을 함께 염송했다.

이날 공연에서 합창단은 단일 사원 합창단이라는 제약을 당당히 벗어던지며 마지막 곡 ‘총지종의 노래’를 마칠 때까지 총 11곡을 완성 도 높은 화음으로 선보였다. 특히 ‘석가여래 팔상성도’, ‘연꽃잎’ 등 이 날 부른 노래 대부분은 박건우 지휘

자가 작곡한 곡이다.

공연은 3부로 구성됐다. 각 부에서 세 곡씩 나누어 불렀고, 사이사이에 찬조 공연으로 매듭을 엮었다. 마산힐링합창단의 우쿨렐레와 아코디언 연주, 살풀이 무용, 풍류 나들이춤, 박은률 님의 ‘발트슈타인’ 피아노 연주, 고고장구팀 등이 객석과 함께 흥이 넘치는 정겨운 한마당을 이어 나갔다.

조정애 단장은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며, “열두 폭 치맛자락으로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공연에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집행부를 비롯해 전국 스승과 교도가 동참해 창원문화원 250석의 객석을 가득 채웠다.

운천사 주교 우인 정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합창단을 유지, 발전시킨 전임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창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5년 10월 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 합동 회의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덕광 정사)와 신정회 서울경인지회(지회장: 노진숙)가 지난 11월 26일 양평 황순원문학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창교절 법회 이후 마니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의결하고, 더 많은 교도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29차 BBS불교방송 이사회 개최

제129차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수불 스님)가 지난 11월 27일 오전 10시 다보빌딩 3층 범당 다보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종호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암 스님(쌍계사)을 새 이사로 선임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울특별시 표창장 수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보육 유공자 표장을 받았다.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서 하 원장은 어려운 보육 환경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 응원 서울' 만들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아동회관 교사 '사자보이즈'로 1등

종로구 아동회관 어린이집(원장: 진금선) 보육 교사들이 11월 26일 종로구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2025 종로 보육인의 밤' 행사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를 코스튬해 영유아들을 위협하는 악귀를 물리치는 퍼포먼스로 1등을 차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
〈네임 스티커〉의 황보나 연작소설



**“누군가가 나를 추궁하지도 않고,
나를 밀어내지도 않는 그런 관계라면 너무 따뜻하잖아.”**

**일
곱
개
의
초
록**



『네임 스티커』로 제14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황보나 작가의 첫 소설집. 황보나는 “소설을 읽을 독자는 물론, 작품의 주인공으로서의 청소년을 존중하는”(송수연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작가이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자세”(윤성희 소설가)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청소년문학의 믿음직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네임 스티커』에 이어, 다시 한번 청소년들이 지난 내면의 소용돌이와 소수자성을 사려 깊게 그려 내는 동시에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일을 이야기한다. 작품 속의 청소년들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쉴 자리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주며 자신을 마주한다. 색이 바랜 이들의 마음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연작소설 『일곱 개의 초록』이다.

*황보나 작가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법수연 전수의 자녀입니다.

저무는 해 총기 54년, 돌아보는 불교총지종!



1월

1월 2일(목)	법계월 전수 49재(총지사)
1월 3일(금)	통리원 시무식
1월 6~12일	새해 불공
1월 15일(수)	제210회 원의회 개최
1월 16일(목)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스승(정원심, 유가해 스승) 진원식
1월 16일(목)	제21대 통리원 공식 출범
1월 16일(목)	제140회 유지재단이사회 개최
1월 21일(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 법회
1월 24일(금)	제118주년 종조탄신대재
1월 26일(일)	시각화 지수 입적
1월 29일(수)	설불공

2월

2월 13일(목)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덕광 정사,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법일 정사 선임
2월 14일(금)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217차 이사회 개최
2월 19일(수)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
2월 21일(금)	제102회 BTN불교TV 이사회
2월 27~28일	총기 54년 사무지도 감사

3월

3월 4일(화)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입학식
3월 11일(화)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회의
3월 14일(금)	제1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3월 15일(토)	시각화 지수 49재(수인사)

3월 18일(화)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법상 정사, 총무 일진 정사 선임

3월 28일(금) 집행부 사원 간담회(관음사, 법성사, 성화사)

4월

4월 4일(금)	중앙교육원 교육원장 원당 정사 임명
4월 8일(화)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4월 13일(일)	산불 피해 이재민 돋기 성금모금 마감
4월 15일(화)	원의회, 재단 이사 합동회의, 종의회
4월 16일(수)	제104회 춘계 강공회 입재, 제155회 승단 종회 개최
4월 17일(목)	제104회 춘계 강공회 회향
4월 17일(목)	충청전라교구장 승원 정사 발령
4월 24일(목)	산불 피해 문화유산 이재민 돋기 성금 전달 조계종, BBS불교방송, BTN불교TV 각 1,000만원
4월 25일(금)	제14대 중앙종의회 종의회 의원 인사 발령 의장 인선 정사, 부의장 법상 정사 외
4월 26일(토)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
4월 30일(수)	산불 피해 이재민 돋기 경북도청에 2,000만 원 성금

5월

5월 5일(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19일(월)	신정회 서울경인교구지회 스승의 날 보은행사
5월 22일(목)	2025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총지사)
5월 24일(토)	포항 수인사 관불행사(간월암, 부석사 등)
5월 28일(목)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5월 29~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연수

비움·나눔·정진의 을사년, 모두가 본래 부처로…



6월

- | | |
|-----------|----------------------------|
| 6월 11~14일 | 종무원 제주도 관불 |
| 6월 17~19일 |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범어사 대회 개최 |
| 6월 30일(월) | 효강 대종사 열반 3주기 추선불사 봉행(총지사) |
| 6월 30일(월) | 제174회 임시 종의회 개최 |

7월

- | | |
|-----------|-----------------------------|
| 7월 15일(화)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
| 7월 16일(수) |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 |
| 7월 17일(목)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 |
| 7월 23일(수) |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통리원장 독도 방문 |
| 7월 29~31일 | 제8회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한마음캠프(총지사) |

9월

- | | |
|-----------|-------------------------|
| 9월 8일(월) | 제45주기 종조열도절 추선불사(원정기념관) |
| 9월 16~20 | 한국불교 지도자 몽골 불교문화 교류 참석 |
| 9월 12일(토) | 종교법인 신뇨엔 제등호마법요(도쿄) 참석 |
| 9월 23일(화) | 대전 만보사 승강기 회향 불사 |

10월

- | | |
|-------------|------------------------------|
| 10월 6일(월) | 추석 불공 |
| 10월 15일(수)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제2회 정기 이사회 |
| 10월 17~20 일 |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북경) |
| 10월 22일(수) | 제212회 원의회 및 제142회 재단이사회 |
| 10월 22일(수) | 제105회 추계 강공회 입재, 제175회 중앙종의회 |
| 10월 22일(수) | 사감원장 임명, 법일 정사 |

10월 23일(목) 전법관정 수계법회 봉행(11명 서수)

10월 23일(목) 제156회 승단총회

10월 24일(금)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참석

10월 28일(화) BTN불교TV 제105회 이사회 개최

11월

- | | |
|------------|-------------------------|
| 11월 1일(토) | 종립 동해중학교 반야회 삼사순례 |
| 11월 8일(토) | 한국불교태고종 제4회 태고종 영산재 참석 |
| 11월 11~12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9개 기관 순회 |
| 11월 13일(목) | 수능불공 |
| 11월 13일(목) |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진각문화전승원) |
| 11월 19일(수) | 운천사 부림합창제 개최(창원문화원) |
| 11월 21일(금) | 법계월 스승 1주기 추선불사(총지사) |
| 11월 25일(수) |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 합동 회의 |
| 11월 26일(목) | BBS불교방송 제129차 이사회 |
| 11월 27일(금) |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8주년 |

12월

- | | |
|------------|-------------------------|
| 12월 10일(수) | BBS불교방송 창립 35주년 기념법회 |
| 12월 22일(수) | 동지 맞이 팥죽 나눔 행사 |
| 12월 24일(수) | 창교절 법회(전국 사원) |
| 12월 24일(수) |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정기연주회(총지사) |
| 12월 31일(수) |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 |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마음이란 것은 자유를 본질로 한다

제1장 교상(教相)과 사상(事相) 편

제3절 각종 논설

13. 마음이란 것은 자유(自由)를 본질(本質)로 한다.

비유(比喩)하면 뜻과 같이 안될 때는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다. 그런데 소인(小人)은 망심(妄心)으로서 자유(自由)로 하고 성인(聖人)은 본심(本心)으로서 자유(自由)로 한다. 중생(衆生)과는 정(正)히 반대(反對)이다.

자존심(自尊心)의 자유(自由)는 독재(獨裁)

탐심(貪心)의 자유(自由)는 간인(慳惜)과 도탐(盜貪)

향락(享樂)의 자유(自由)는 타락(墮落)

진심(瞋心)의 자유(自由)는 폭행(暴行)과 살생(殺生)

아집(我執)의 자유(自由)는 반항(反抗)과 자존(自尊)

언어(言語)의 자유(自由)는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說), 악구(惡口) 비방(誹謗)

이런 것들을 행(行)할 때는 쾌(快)한 것 같겠지만 행(行)한 후(後)에는 불쾌(不快)한 것이다. 본심(本心)의 자유(自由)는 망심(妄心)을 억제(抑制)하는 까닭에 행(行)할 때는 불쾌(不快)하나 행(行)한 후(後)에는 쾌락(快樂)하며 선자(善者)는 재화(災禍)를 초래(招來)하나 후자(後者)는 복덕(福德)을 얻게 된다. 이것들은 같지 아니한데 있는 것이고 진심(瞋心)과 망심(妄心)이 다르므로 그렇게 되느니라.

* 부처를 알고 자고 부처와 같이 일어난다.

*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 - [인간세계(人間世界) 각종(各種) 유정세계(有情世界) 각성신세계(各星辰世界) 각자이상세계(各自理想世界)]

* 선악(善惡) - 인간본위(人間本位)인데 기타중생(其他衆生)이 악(惡)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주관(主觀)은 선(善)인데 객관(客觀)에 악(惡)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섣부른 자유는 방종과 타락을 부른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뒷맛은 찜찜하다. 잠시 상대를 이겼다고 여긴들 과보는 어쩌지 못한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치사하기 이를 데 없고 음흉하기까지 하다. 늘 환하게 미소 짓지만 가식적일 때도 적지 않다. 앞에서는 수긍하고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별생각을 다 한다. 변덕도 심하다.

꿈은 더하다. 때로 잔인하고 폭력적일 때도 있다.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엉뚱한 사람과 얹혀싸운다. ‘가시나무 새’의 노랫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갈피를 잡기 어렵고, 어둠과 슬픔도 무성하다. 타인을 품는 건 고사하고 나 자신이 쉴 곳도 이 마음 안에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어떤 날은 면 나라의 참상에 가슴이 저리고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의 비보에 마음이 아프다. 오지랖이 넘친다 싶게 지레나서서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요리조리 계산하지 않고 선뜻 보시할 때도 종종 있다. 아주 가끔은 세상과 사람을 모두 품을 것처럼 가슴이 활짝 열려 더없이 맑고 가볍다.

우주를 안을 만큼 한없이 넓다 가도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이 좁디좁은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내가 딱 그렇다.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갈 때면 조울증인가 싶기도 하고 이중인격자 같기도 하다.

예로부터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인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다. 인류학자도 진화 과정에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연구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본래 어

떤 존재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의 관심사인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있다고 했다. 그것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거울에 긴 먼지와 때를 닦듯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본래 맑고 밝으니 본성으로 바로 들어가라고도 한다.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 모두가 지닌 부처의 성품을 어떻게 찾고 가꾸고 꽂피울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원정 대성사는 『금강경』을 주석한 중국 부대사의 계송을 제시하셨다. “부처를 알고 자고 부처와 같이 일어난다.”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부처는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부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밤마다 부처를 알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서고 앉을 때 늘 따라다니며 말하고 침묵할

때 함께 한다.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흡사 몸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부처가 있는 곳 알고자 하는가? 소리 내어 말하는 바로 이것이로다.”

원정 대성사는 이를 화두로 던져 주셨다. 내 안의 부처를 찾으라는 말씀이자 지금 당장 부처님처럼 살아보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부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나 되면 별씨 다 성불 했지?” “사람에겐 근기가 있는데 나란 사람은 이번 생에는 어렵지 않을까?” “나 같은 중생이 무슨…….” 이런 생각이 바로 중생심일 것이다. 도에 다다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이러한 자기 비하에는 적당한 합리화로 세속적인 삶을 즐기고 싶은 속내도 숨어 있다.

진심과 망심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다. ‘왜 저래?’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왜 그럴까?’ ‘무슨

일 있나?' 걱정할 수도 있다. '그것 봐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좋아.' 같이 안타까워하고 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원정 대성사는 질문을 던졌다. 인간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자꾸 악하게 흐르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는 선하게 대하면서 타인에게 악한 것은 왜 일까? 스스로는 선이라 여겨도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하

라고 하면 대개는 몇몇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손을 들곤 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질문할 게 없다. 외우기 바쁜 사람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니 궁금한 게 없다. 질문을 통해 되짚어보고 걸러져야 진실로 나의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말했더라도, 혹은 권위 있고 전통 있고 훌륭한 누군가가 한 이야기라도, 스스로 사유하고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 증명하고 검증한 다음에 믿고 따르라 하셨다. 맹신과 도그마

에 대한 부정이자,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현실과 자기의 문제로 끌어와 마음 깊이 확신이 서야 진실로 내 것이다.

불교의 진리와 나의 생각, 나의 언행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했다. 스스

로가 부처임을 자각하고, 앓고 서고 눕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 부처로 살아야 한다지만 그 경지는 여전히 멀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 부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경우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자문자답하며 부처님의 안내를 청하고 짐짓 흉내라도 내보려 한다.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지 말고 부처님이 옆에 계신 듯 생각해 보려 한다.

〈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지혜의 눈

공동체 회복

한민족이 내재한 심성에 주목 민족의 자산 중심에 한국불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친 시기는 바야흐로 유럽이 세계의 강자로 올라서기 시작한 시기다. 이 시기에 유럽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배경에는 크게 세 사건이 있다. 르네상스[하이 르네상스(high Renaissance)]는 1490년대에 시작해서 1527년 로마시가 파괴되던 시기까지 해당]와 아메리카 대륙 침략(1492), 종교개혁(1517)이다. 이 세 사건은 유럽이 중세의 침체에서 벗어나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갑자기 유럽의 활동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보통 '이른 근대(Early Modern)'라고 부른다. 근대의 끝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 내지는 1968년 일어난 68혁명 때까지로 보는 것이 다수의 주장이다.

이처럼 세계사의 변동과 관련하여 같은 시기의 한국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의 후진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 체제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달리 해석하는 주장이 많이 대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시장의 구매층이 양반을 넘어 중인과 부유한 상공업자, 지주로 확대되며 어느 정도 활성화된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조(時調)의 창작 계층이 양반에서 중인과 일반 평민으로 확대되거나, 서민이 향유하던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한 현상도 이에 해당한다. 유럽에서도 17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bourgeois) 계층이 주도해 그림 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일반화된 것은 18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에서였다. 부르주아는 성(城)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도)시민이라고 한다. 18세기 조선도 일정 정도 상공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역으

로 떠오르고 있었다.

정치제도와 사상의 측면에서도 조선은 결코 유럽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유럽의 18세기 절대왕정은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관료제는 조선에서도 과거제도와 맞물려 건국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였다. 세습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공직에 진출하는 체제가 그때까지도 유럽에서는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당송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되어 있었다. 더욱이 18세기의 계몽사상은 공자(孔子)의 사상에 일정 정도 영향받았다는 주장이 서구 학자들에게 의해 제기되고 있다.

1950~60년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빈국이란 종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던 1970~80년대는 나름의 주체적 역사 인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 문명과 일본과 대등할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인정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변하였다.

문제는 같은 시대에 식민사관에 물든 나이 든 기성세대와 선진국의 관점에서 이전 세대와 판이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대 간의 차이보다 세대 간에 공유됐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남북한의 공통된 민족의식이 남아 있던 세대가 사라지면 통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남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거의 한 세기를 지나면서 남북의 이질화가 심각할 정도로 심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후유증도 엄청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민족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서 수천 년 동안 내재한 한민족의 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만 의미가 있지 않고 전 세계 인류와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은 무엇일까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거기에 불교가 오롯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것으로서의 불교!

칼럼니스트 김태원



내 의식의 주인이 되어 ‘업’ 소멸 행복 해탈 누리며 반복 관행 정진하길



불교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입니다.

고(苦)를 떠나 낙(樂)을 얻는 것입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까닭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재물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란 우리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정서’, ‘좋은 느낌’입니다. 성공, 건강, 재물, 명예는 행복의 조건이고, 그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

는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우리 가슴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졌다면 그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기(緣起)라는 존재법칙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신 바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세상 존재계를 바람직한 관점(觀點), 정견(正見)으로 바라보면서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가 ‘연기적’, ‘무아(無我)적’ 존재임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인식(認識)을 전환(轉換)하였을 때, 내 가슴속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기적 관점’으로 풀이해 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숨 쉬고 있기 때문이고, 숨 쉬고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나무는 흙과 물과 햇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서로 관계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관계성의 연기적 존재계’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연기법을 거듭 사유하고 반복 관행(觀行)하면서, 우리는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因)’과 ‘연(緣)’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을 바른 견해(見解), 정견(正見)으로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긍정하는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도 수많은 인과 연의 조건으로 결합하여 생긴 것이니 조건과 상황을 살펴본다면 부정보다 긍정하는 이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아적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는 늘 ‘나’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다’라고 애착하고,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가 만나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해 사대로 각각 흩어져 사라지고, 마음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찰나에 변화하는 무상(無常)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독립되고 고정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적 존재임을 반복 관행함으로써

'나다라고 할 것이 없네' 하고 수긍하고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을 거듭 깨달아 '나다'라는 습관적인 탐진치(貪瞋痴)에서 한 겹씩 벗어나면 자유롭고 행복 해탈한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습관적인 자아의식인 탐진치로 살 때 와 연기적, 무아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느낌의 차이는 조금씩 달라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마음과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관찰하는 '의식의 전개 과정'이라는 좋은 방편법이 있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意識)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대상[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객체화하여 끌어오게 되어 있는데, 끌어오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멈추어 버리면 그냥 의식 자체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어떤 대상도 붙잡지 않은 상태로, 맑은 의식, 본래 청정한 본성품, 본바탕의식 그 자체, 자성(自性)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概念) 이전의 '순수 감각 상태'로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의식은 드디어 움직이면서 육근[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을 통해 무언가 계속 객체(대상)를 끌어오는데, 눈에 무언가 비치게 되고,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물건이 무언가 내 앞에 보일

때, 무언라고 이름(개념) 붙이기 이전의 순수 감각 상태로 대상을 받아들이되 받아들이는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 상태로 무언가 모양이 비쳐오는 '구나', 무언가 소리가 들려오는 '구나' 하는 '구나 단계'입니다. 이 의식 자체로 순수 감각 상태에서 '무심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기를 통찰(洞察)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을 존재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그렇게 존재할 만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니, 하나의 존재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이러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하겠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연기적인 눈으로 보는 '겠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지적(知的)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 맷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연기적으로 통찰하는 단계'로, 연기적으로 살피는 것은 인식의 기초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누군가와 아픔을 겪으며 갈등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 탓만 하고 있던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함께 살펴본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살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

이 있겠지', '여자저차하는 이유들이 있겠지'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풀리면서 가볍고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긍정(肯定)으로 전환하여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의식은 앞 단계에서 존재로 보던 것을 이제 가치로 보게 됩니다. 앞에 대상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것 이 아니라 가치 평가로 시비, 선악, 미주, 즉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맑다, 곱다 하면서 주관적으로 분별하여 봅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긍정보다 부정으로 봅니다. 굳이 가치로 본다면 부정과 긍정에서 부정에 빠지지 말고, 긍정으로 향하면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서로 교류하고 나눔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행복을 나누면 서로 상생(相生)하는 원원(Win-Win)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 전개 과정의 다섯 단계를 삶 속에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하루에 10초라도 의식 자체로 머물러 보는 힘을 길러 자성으로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두 번째, 개념 붙이기 이전 순수 감각 상태에 머무르며 보는 힘을 길러 무언가 모양이 비쳐오는 '구나'하면서



행원심 전수

무심한 상태의 평화로움을 느껴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연기적으로 통찰해서 이것이 이러이러할 때는 다른 것(이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하겠지'하면서 가볍고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네 번째, 부정 대신 긍정으로 전환해서 감사해 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 가족부터라도 서로 빙그레 미소 지으며 교류하고 나누며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의식은 습관적인 탐진치, 즉 삼업(三業)에 끌려가며 업을 쌓는 삶이 아니라, 내 의식의 주인이 되어 업을 소멸하는,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 행복 해탈을 누리면서 반복 관행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행원심 전수(화음사 주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教)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 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화부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보육서비스와 바른 인성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



총지종의 역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2011년~2021년)

02. 시대와 함께하는 총지종 구현

일찍이 1984년 종립 한마음유치원을 개원하여 보육 사업을 시작한 종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 박차를 가했다. 2012년 3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단지에 개설된 강남구립 초록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바른 인성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작한 종단은 2013년 3월 강남구 일원동의 일원어린이집, 10월 서초구 내곡동의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했다.

이어서 2016년 서초구 잠원동의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2018년 경기도 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 양지어린이집, 2019년 강남구 자곡동

의 힐스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했다. 불교계로서는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총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본산이 자리한 지역에서의 종단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립 아동회관어린이집과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립 벗고을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여 보육 사업의 지역을 넓혀 나갔다.

종단이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활동과 지역 사회 연계 활동을 전개하여 영유아의 심신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급·간식을 비롯한 보육프로그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였다.

2013년 일원어린이집은 아토피 안심 학교로 선정되어 강남구 보건소와 연계한 아토피 실태 환경 조사와 다양한 마술, 인형극 공연 등으로 영유아의 심신 발달을 지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전국보육인대회에서 일원어린이집과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원장이 우수 보육 기관장으로 선정되는 등 영유아 보육의 인적, 물적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잠원햇살어린이집은 2020년 원내 벽면을 공기 정화 식물로 꾸며 도심 속 생태 친화적 어린이집으로 거듭났다.

종단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직원 연수 교육을 시행하여 교사의 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코칭 기법, 심리학 등 인문학 강좌를 제공했다. 정기적인 연수 교육과 함께 누리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 과정 교육, 아동 학대 및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새로이 개발된 다채로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심화 교육을 진행하여 모범적인 보육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8개 국공립 어

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종단은 국공립 아동 복지 시설 다함께키움센터 수탁 운영으로 나아갔다.

강남구 자곡동 훼미리타운에 있는 179.95m² 규모의 세곡다함께키움센터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맞벌이 가정의 아동 30여 명을 돌보는 기관으로 2020년 8월 개원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 중심의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방과 후에 문화·예술·스포츠 등 학습·체험 프로그램, 건강·안전 프로그램,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제 지도와 학습 위주의 돌봄 서비스와 함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창의 미술 공예 수업, 안전 교육,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수업, 독서 활동, 우쿨렐레 수업, 자원봉사 동아리 수업, 체육 활동, 전래 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운영과 야외 체험 학습 등을 일시 중단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여 명의 아동에게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종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 이후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차별화하며 발전시켜 왔다. 사진은 재단 산하 강남구립 일원어린이집 전경.

금강계만다라 - 미세회 微細會

미세회는 그림과 같이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茶羅)의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미세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불보살의 존상(尊像)이 삼고저(三鉛杵) 안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마치 불보살이 등에 삼고저를 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삼고저란 금강저(金剛杵)라고 하는 밀교의 수행 도구 가운데 하나로서 짧은 창의 양 끝에 세 개의 칼날 송곳이나 있는 무기다.

창끝이 하나이면 이를 독고저(獨鉛杵)라 하고, 셋이면 삼고저(三鉛杵), 다섯이면 오고저(五鉛杵)라 한다. 독고저는 진여(眞如)를 나타내고, 삼고저는 삼밀(三密)과 삼신(三身)을 뜻하며, 오고저는 오지(五智)와 오불(五佛)을 상징한다. 특히 오고저는 양 끝을 모두 합하여 십바라밀(十波羅蜜)을 나타내기도 한다. 십자형(十字形)의 갈마저(羯磨杵)는 사업(事業)의 성취를 의미한다.

원래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무기로 쓰였는데, 이것이 밀교에 유입되면서 수행자의 도구로 변용되었다. 금강저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라-바라(Vajra-vara)라고 하는데,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깨뜨려 부수는 것으로, 밀교에서 수행 도구로 썼다. 즉 깊은 신심과 불퇴전의 용맹심을 나타내며 번뇌망상을 최파(摧破)하는 보살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대개 철(鐵)이나 동(銅)으로 만든다.

미세회(微細會)의 명칭은 ‘금강미세만다라(金剛微細曼茶羅)’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강계 구회만다라 가운데 하나인 미세회는 성신회(成身會)나 삼매야회(三昧耶會)와 마찬가지로 모두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37존(尊)이 그려져 있으며, 모두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불보살의 존상(尊像)이 성신회(成身會)와 같지만, 특이한 것은 앞에서도

● 미묘하고 미세한 비로자나불 지혜 삼고저로 상징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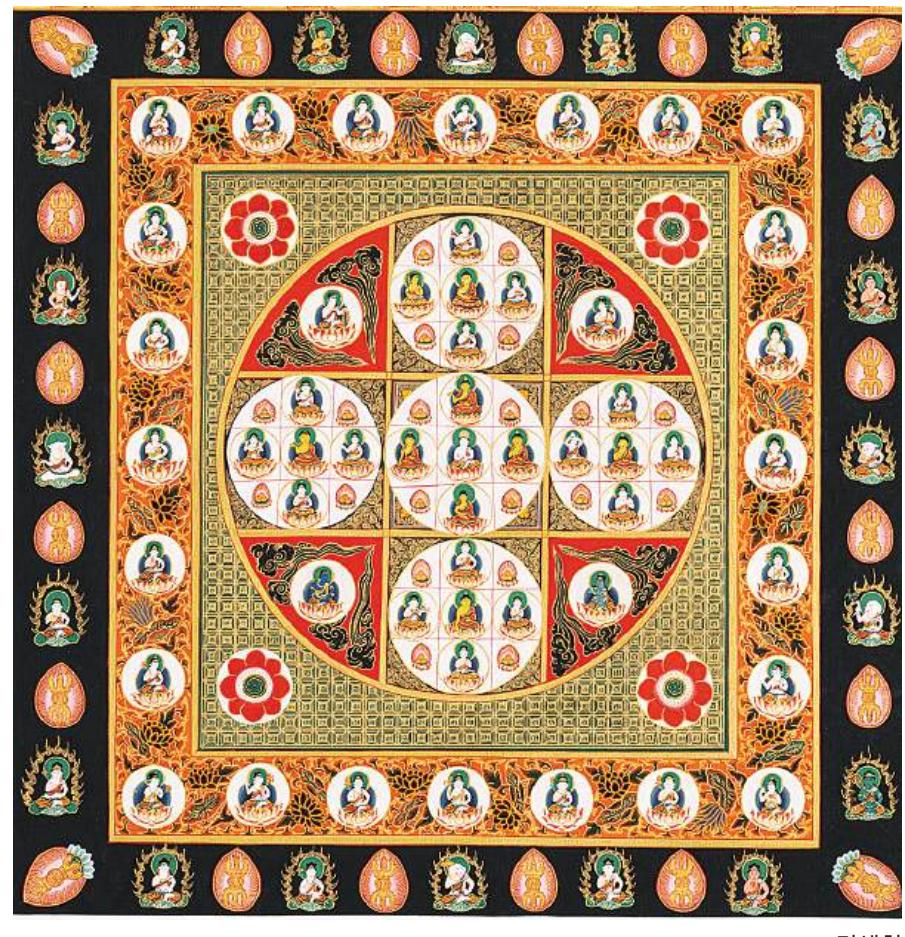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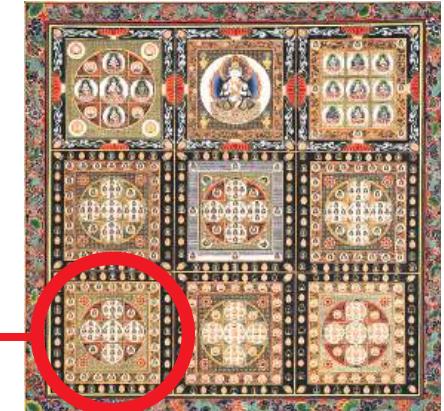
언급하였듯이 존상이 모두 삼고저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미세회의 존상은 다른 만다라와 달리 삼고저 속에 그려졌으며, 또 미세회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그 근거는 『금강정경(金剛頂經)』의 「금강지법만다라 광대의궤분(金剛智法曼茶羅廣大儀軌分)」에 있는데, 삼고저 속에 존상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또 미세회라는 명칭은 ‘금강미세만다라(金剛微細曼茶羅)’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세회(微細會)는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미묘하고 미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미세는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으므로 불괴(不壞)의 뜻이며, 그 지혜가 미묘하고 세밀하다 하여 미세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불의 지혜가 미묘 미세하다는 것을 삼고저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곳도 미세하게 두루 볼 수 있으므로 금강미세라 한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광명변조(光明遍照)요 제암변명(除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無生滅)이라 설명한다.

광명변조(光明遍照)는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뜻이고, 제암변명(除暗遍明)은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을 편다’는 뜻이며, 능성중무(能成衆務)는 ‘능히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는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 (갈마회)	항삼세회
미세회	삼매야회	항삼세 삼매야회



뜻이며, 광무생멸(光無生滅)은 ‘빛이 생하고 멸함이 없다’는 뜻으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불생(本不生)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본래부터 불생(不生)이고 불멸(不滅)’이라는 말이다. 본래불생불멸(本來不生不滅)을 줄여 본불생이라 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진리의 부처님이다. 『금강정경』에서는 “지혜의 표지인 금강저를 코끝에 두고 이를

관상(觀想)하며, 금강지(金剛智) 그 자체에 오로지 마음을 몰두하여 삼매에 듦다”고 설하며, 이를 미세회의 만다라라고 설명한다.

금강저 가운데 특히 삼고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불부(佛部)·연화부(蓮華部)·금강부(金剛部)의 삼부(三部)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신구의 삼밀을 삼고저에 비유한 것이라고도 한다.

혜광 정사(시법사 주교)



밀교와 활의 의례 (1)

대승불교에서 활은 반야의 지혜와 삼매 상징 밀교에서는 자아의 현실 직관하는 수행 비유

필자가 취미로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국궁이다. 국궁은 우리 민족의 전통 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 불교문화연구원 시절부터 익혔으니 필자가 집궁한 지 25년 가까이 된다. 전통 활 가운데 각궁은 물소뿔과 대나무, 아까시나무, 쇠심줄을 민어 부레풀로 블여 만든 복합궁이다. 고구려 무덤에서는 소 늑골로 만든 복합궁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 민족이 활을 쏜 기록으로 가장 오랜 것은 제2대 단군인 부루 단군 시대의 <어아가(於阿歌)>에 나타난다. 1921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 <어아가>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25년 7월 1일 <개벽> 제61호에 게재된 <조선 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가운데 “어아어아 선심(善心)은 활이 되고, 악심(惡心)은 관사(貫射)이라”라고 한 대목을 볼 수 있다. 고조선의 관직 제도에서 활은 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 민족과 활의 인연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필자는 오랜 인연 때문인지 불교와 활을 주제로 두 차례 연구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에서 불교와 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였다. 요약하면 불교 경전과 계율 가운데 적지 않은 활의 비유나 인용을 볼 수 있으며, 불교 의례 가운데 활과 화살이 중요한 의식 도구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봉다의 전생담에서 태자 시절 활을 연마한 것과 율장에서 봉다 시대에 활이 전쟁과 수렵의 중요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승불교 시대에는 활을 반야의 지혜에 비유하거나 활이 지닌 집중을 불교 삼매에 비유한 경문을 빈번히 볼 수 있다.



금강애보살(金剛愛菩薩). 출처: 불교진적간행회(佛教珍籍刊行會) 『신찬불상도감(新纂佛像圖鑑)』 제2권[地之卷].

로서 전통의 이미지를 계승한다. 그런데 밀교 시대 활은 반야와 대락사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 도구가 되었으며, 후기 밀교 시대 꾸루꿀례의 수행 전통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한마디로 봉다 시대 활과 화살은 밀교 시대 활의 의례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불교에는 무수한 의례의 소재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활이 등장하는 의례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이 중 『금강정경』 계의 의례 가운데 등장하는 활을 소개하면 금강계 만다라에 등장하는 활은 아촉 여래 부족을 구성하는 금강애보살(金剛愛菩薩)의 지물로 등장한다. 금강계 만다라의 오불 가운데 비로자나 여래의 부족은 진리의 절대성, 부동의 열반, 영원성을 상징한다. 반면 아촉 여래는 절대 세계로부터 생명이 출현하기 위해 의식의 눈을 최초로 뜨는 보리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계 만다라는 인간 현실에 대한 대긍정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의례인 것이다.

금강계 만다라에서 활이 관여하는 것은 바로 아촉 여래 부족으로서 여래의 남방에 자리한 금강애보살이다. 한역본 『진실섭경』에는 금강애보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때 박가범께서는 다시 마라대보살삼매야(摩羅大菩薩三昧耶)에 들어가 살타에 가지하시니 이를 금강삼마지라 이름하며, 일체 여래수염삼매야(一切如來隨染三昧耶)로서 일체여래심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다음의 진언을 염송한다. 바아라가(囉日囉二合 邊引哦)”

여기서 마라대보살삼매야라고 한 것은 석가모니 봉다가 물리친 마라(魔羅)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온마(蘊魔)·변뇌마(煩惱魔)·사마(死魔)·자재천마(自在天魔)를 가리킨다. 진언수행자가 가지한 수염삼매야의 수염(隨染)은 인간의 무명, 번뇌, 욕망과 같은 현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진언의 내용은 ‘바즈라 라아가(vajrarāga)’인데 라가(rāga)는 감각, 욕망, 탐애를 가리키며 중생이 늘 길들어 있는 사소한 마음도 라가에 기인한 것이다. 『진실섭경』에서 밀교의 바즈라, 즉 금강은 반야지의 불변성을 상징한다. 요약하면 인간 욕망의 현실을 반야의 지혜로 관조할 때 드러나는 인간 현실과 욕망의 긍정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활을 당길 때 과녁에 대한 집중과 삼매의 경계가 인간 자아의 현실을 반야지로 직관하는 밀교 수행에 비유된 것이다. (계속)

정성준 | 자유기고가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③¹
대방광불화엄경 제8권

사바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다

세존께서 지난 옛적 여러 세상에 티끌 수의 부처님께 좋은 업 닦고 가지각색 보배 광명 얻으셨으니 이것이 화장장엄세계해니라.

넓고 큰 자비 구름 세계에 가득 한량없이 버린 몸이 세계 티끌 수 옛날에 오랜 세월 행을 닦아서 오늘날 이 세계에 때가 없도다.

큰 광명을 놓아서 허공에 가득 바람으로 받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불장마니(佛藏摩尼) 보배로 두루 꾸미니
여래의 원력으로 청정해졌네.

마니로 된 묘장화(妙藏華)
널리 흘으니
옛날의 원력으로 허공에 있고 가지가지 견고한 장엄 바다에 빛난 구름 드리워 시방에 가득.

모든 마니 가운데 보살 구름이 시방에 두루 나아감에
광명이 치성
불꽃 광명 바퀴 이뤄
꽃으로 장식
법계에 두루 흘러 두루 펴졌네.

온갖 보배 가운데서 광명 놓으니 그 광명이 중생 바다 두루 비추고 시방세계 국토에 가득히 차서 고통 바다 벗어나 보리로 가네.

보배 속에 부처님들 중생 수 같이 털구멍서 나오는 변화한 형상 범천왕과 제석천왕 전륜왕이며 온갖 가지 중생과 부처님이라.

화현한 광명들이 법계와 같고 광명에서 부처 명호 연설하여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할 때에 중생들의 마음 따라 모두 다하네.

화장장엄 세계에 있는 티끌들 낱낱 티끌 가운데 법계를 보니 광명 속에 부처님 구름 모이듯 이것은 부처님들 세계의 자재.

넓고 큰 서원 구름 법계에 가득 한량없는 겁마다 중생을 교화 보현의 지혜와 행 다 성취하니 하고 많은 장엄이 여기서 나네.

(중략)

이 위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바(娑婆)이니라. 금강 장엄으로 짬을 삼고 가지각색 빛 풍륜으로 유지하는 연꽃 그물을 의지하여 머물며, 형상은 둥글어서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을 장엄하는 허공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세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으며, 그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여래 세존이시니라.

아름다운 화장장엄세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랫동안 서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 결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화장장엄세계는 향수(香水)로 이루어진 바다에 수많은 풍륜(風輪)이 서로를 받치고 있고, 아름답고 큰 연꽃이 피어 있으며, 그 중앙에 20층의 세계가 있는데 그 13층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가 있다. 사바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행 공덕으로 이루어진 화장장엄세계 안에 있고, 그중에서도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이라니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참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증오는 죽임과 죽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현장에도 그들을 돋고자 나선 숭고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바세계 역시 이런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장엄되는 것이라. 사바세계가 그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그래도 견딜 만한 세계인 것은 바로 이런 보살행 덕분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받은 수많은 은혜에 보답

하기 위해서 나의 서원 또한 끝이 없어야 하고 끝없이 보살행을 해야 하리라.

않고 거저 가져다 쓰기만 했으니, 나 역시 무엇을 바라고 보살행을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자비를 떠올려 본다. 언제나 태양과 달이 밤낮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나무와 풀이 내준 산소를 마시고, 또 그들의 몸을 먹고 지구가 내어준 물을 마시며, 오랜 생명의 진화와 인류 조상의 애씀 덕분에 발달한 문명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사람의 도리를 알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런 지구와 조상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 것을, 받을 때는 거저 받았으면서 줄 때는 대가를 바란다면 도둑심보가 아닐까 한다. 내 마음에 선한 의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빛나는 순간이자 우리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때라는 생각이 듈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총기 54년 추계 강공
보시 고맙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총지사
총지화 스승님
총지화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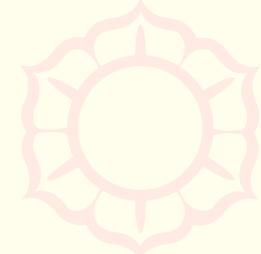
덕화사
운천사
정각사
벽룡사 신정회
자석사 신정회

관성사 김병석 교도
단음사 신정회 권순복 회장
벽룡사 무명씨, 김태현 교도
삼밀사 지영순 교도
총지사 김은숙 교도
마니합창단 김은미 단장

총지사
안병진 각자, 강경민 보살 자녀
안소연 양(11월 15일)

법천사 주교 화령 정사 자
이수찬 군(11월 22일)

통리원
이광필 처무 자
이재범 군(11월 30일)



지난 312호 28면 ►
가로세로 정답

일	신	우	일	신		언	중	유	골
출		공		기	시	감		만	
	나	이		루		생	면	부	지
선		산	기		불	심		동	
입			사	랑	가		부		역
견	강	부	회		근	정	전		지
	장		생	사			자	연	사
술				별	주	부	전		지
술	래	잡	기		인				
책			역		공	무	도	하	가

십선성취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행복한 일도, 괴로운 일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업(業)]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은 ‘바라는 마음’이다.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몸과 입과 뜻으로 행위를 하는 원인이 된다.

불교에서 이러한 바라는 마음을 ‘갈애(渴愛)’라고 부른다. 갈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다.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오래 살고 싶다거나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이런 것이 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셋째는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삶이 끝나기를 바라고, 죽고 싶다는 마음, 허무에 대한 갈망을 말한다.

‘바라는 마음’은 괴로움이며 윤회

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하지만 중생은 갈애를 행복이라 느끼며 바라고 또 바란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즉 “무명 때문에 괴로움을 행복이라 이해하는 잘못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수[受, 느낌]에 이어 애[愛, 갈애(渴愛)]가 일어나면 도(道)와 과(果)에 이르는 열반은 결코 실현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낌에 이어 화냄, 성냄, 근심이 따라오면 도과에 이르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를 우리와 같은 중생이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운 재가 신도에게 방편으로 자비로써 복

바라는 마음

을 많이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외수 작가의 소설 <벽오금학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주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니라. 풀과 나무는 아름답고자 하는 소망에 의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고, 씨앗을 짹틔우는 것이라.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소망은 비단 풀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 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즉, 행복이란 바로 마음이 아름다워진 상태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감정이니라. 따라서 아름다움을 모를 때 사람은 불행한 법이니라. 그러나 때로 어리석은 인간은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소망과 욕망을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욕망에 아름다움을 더하면

소망이 되고 소망에 아름다움을 빼면 욕망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라.”

종교라는 것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바라는 마음에 아름다움이 빠지면 욕망이 되고, 바라는 마음에 아름다움이 더해지면 서원이 된다.

과거는 대부분 회한이며 아쉬움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것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혜 정사(법성사 주교)



마인드의 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은 하나인데 관점과 의미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나 결론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겪게 된다.

공자(孔子: 기원전 551~기원전 479)가 조카 공멸에게 물었다.

“네가 그 자리를 맡아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또 무엇이냐?”

공멸은 공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표정이 어두워졌고, 자신이 느낀 대로 공자에게 말했다.

“예, 저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 너무 많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보수가 너무 적어 부모님은 물론 친척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셋째는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시간이 없어 소중한 친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공자는 조카 공멸과 같

은 직위에서 일하고 있는 자천을 만나서 똑같이 질문했다.

자천은 공자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일하면서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 정도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책을 통해 익혔던 이론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둘째는 월급이 그리 많지 않지만 적당한 보수이기에 근검절약하는 삶을 몸에 익힐 수 있었고, 셋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귈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멸과 자천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는 달랐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이렇게 삶의 가치관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 스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똑같은 장미를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아니면 장미꽃 속의 가시를 보느냐는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아 성찰(自我省察)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먼저, 공멸과 같이 현재 상황을 비관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장미꽃을 보면서 돋아난 가시를 먼저 보거나 절망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더 두고 부정이라는 단어에 허우적거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자천과 같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발전적이며 긍정적 관점으로 생각하며 장미꽃의 아름다움

과 그 향기에 취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에 무게주를 달고 긍정이라는 단어에 미소를 실을 것인가?

과연 어느 쪽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일까?

그렇다. 자신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신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아무런 수고 없이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손톱밖에 없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문제점이나 난관을 타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화하고자 하는 일에 주저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면 자기 행복은 요원(遙遠)해질 것이다. 어렵고 힘들 수록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으로 희망의 꽃을 키우고 자기 삶의 영양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2025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였으면 한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6일 ~ 11월 25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도관	11/23	20,000
	지종영	11/23	20,000
관성사	김홍조	11/13	10,000
	법선	11/24	10,000
국광사	진여	11/20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1/24	10,000
	수증원	11/24	10,000
	밀공정	11/24	10,000
	법지원	11/24	10,000
	일성혜	11/24	10,000
	사홍화	11/24	10,000
	선도원	11/24	10,000
	안주화	11/24	10,000
	진일심	11/24	10,000
	최상관	11/24	10,000
	연등원	11/24	10,000
	자선화	11/24	10,000
	승효제	11/24	10,000
	주신제	11/24	10,000
	총지화	11/24	10,000
단향사	지홍	11/24	10,000
덕화사	법상인	11/14	20,000
동해사	송인근	11/20	10,000
	김진화	11/24	10,000
만보사	강명순	11/5	10,000
	이종구	11/14	7,000
	김정희	11/19	10,000
밀인사	황갑용	11/10	10,000
	박길선	11/10	10,000
	덕광	11/10	20,000
법성사	신말심	11/17	10,000
	장정숙	11/17	10,000
	남혜	11/24	10,000
법천사	반야심	10/31	10,000
법황사	박미경	10/27	10,000
	인선	11/24	10,000
	정계월	11/24	10,000

법황사	박미경	11/25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11/1	8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10/27	10,000	
	강건욱	10/31	10,000	
	박필남	11/14	10,000	
	하명순	11/25	10,000	
	묘홍	11/2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신찬호	10/27	10,000	
	나석원	10/27	50,000	
	신찬호	11/25	10,000	
	이태윤	11/25	10,000	
	나석원	11/25	50,000	
	박현정	11/25	20,000	
	김경희	10/27	30,000	
	남경식	11/1	10,000	
	김경희	11/25	30,000	
	최선해	11/25	10,000	
수계사	자심관	11/24	10,000	
	최민애	10/26	10,000	
	법상	11/14	20,000	
수인사	공재호	11/21	20,000	
	혜광	11/3	20,000	
	최인희	11/3	10,000	
시법사	혜광	11/3	10,000	
	진금선	11/6	80,000	
		11/25	80,000	
양지동 복지회관	서영주	10/27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10/27	80,000
		반야화	11/5	20,000
운천사		보명심	11/14	10,000
		우인	11/14	10,000
		하재희	10/27	80,000
일원어린이집		김경희	10/30	10,000
		하재희	11/25	80,000
		연명구	11/25	20,000

자석사	도우	11/10	10,000
	지현	11/10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0/27	80,000
정각사	안한수	11/8	10,000
	노점호	11/18	10,000
	법일	11/20	10,000
제석사	이진승	11/18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10/27	80,000
총지사	신현태	10/29	10,000
	김정환	11/2	10,000
	정연경	11/4	10,000
	유은혁	11/4	10,000
	백귀임	11/10	10,000
	신현태	11/10	10,000
	김병관	11/18	10,000
통리원	김평석	11/18	10,000
	록경	11/25	20,000
혜정사	최영례	10/27	10,000
화음사	강동화	10/27	10,000
	박대영	11/1	10,000
	박대성	11/1	10,000
	홍춘자	11/1	10,000
	송영근	11/1	10,000
	송하나	11/1	10,000
	송호영	11/1	10,000
	송서아	11/1	10,000
	무명씨	11/4	10,000
	이성희	11/14	10,000
힐스어린이집	행원심	11/18	10,000
	이은별	11/18	10,000
	곽방은	11/10	80,000
	진여	11/3	10,000
	법공	11/24	10,000
	자선화	11/24	10,000
	총지화	11/24	10,000
워드다르마	남혜	11/24	10,000
	이수영	11/25	10,000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 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충청전라고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과 사상편 p.84

참회 懺悔하는 마음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가장 고귀(高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간의 기본적(基本的)이며 동시에
최대(最大)의 특유성(特有性)인
참회(懺悔)하는 마음이다.
금수(禽獸)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지장 스님의 향유 _19

나와의 만남

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0

메타인지와 마음챙김

_ 임진수



생각의 열매 _23

찰라의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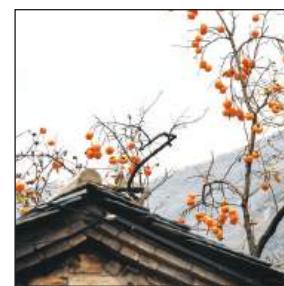
_ 김천



지혜의 뜨락 _25

진품명품

_ 편집실



소통의 한의학 _29

까치밥과 감꼭지

_ 정은철



걷는 자의 기쁨 _30

강원 태백 함백산

_ 박성기

부처님과 제자

“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집회는 쓸쓸하기 그지없구나”

지혜 제일 사리푸트라 존자가 출가해서 보름쯤 되었을 때, 그의 외삼촌인 디가나카[Dīghanakha, 장조(長爪)]라는 바라문이 이 소식을 듣고 석가모니라는 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를 확인하려고 죽림정사에 왔다.

이 사람은 사리푸트라 어머니의 동생이었는데, 젊었을 때 남과 논쟁하다가 이기지 못했기에 인도 남부로 가 수행하며 철학을 배웠다고 했다. 이 사람은 손톱을 길게 길렀기 때문에 긴 손톱이란 뜻의 ‘디가나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 사람도 일종의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어떤 단정적인 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모양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네의 단정은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고 되물으셨다. 계속해서 디가나카에게 세계나 자아에 대해서 상견이나 단견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설법하셨다. 또 일체를 부정하고 진리를 의심하는 회의설도 모두 실체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생겨난 생각이므로 중도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체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 말씀하시자 디가나카는 자기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청정한 법안을 얻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의 외삼촌에게 설법하시는 동안 부처님 뒤에서 부채질해 드리던 사리푸트라는 이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단번에 진리를 이해할 만큼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할 만큼 깊은 신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정도도 뛰어났다.



업력에 의한 과보는 피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서 입멸했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께 자신이 먼저 입멸하겠다고 허락을 얻고 고향인 마가다국의 날라(Nāla) 마을에 가서 친족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한 다음 입멸했다. 그 뒤를 이어 목갈라나도 고향 사람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한 다음 입멸했다. 이 위대한 두 제자가 입멸한 다음 얼

마 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도 입멸하셨다. 두 사람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한 것은 부처님의 입멸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교외에 있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리푸트라가 입멸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사리푸트라의 시중을 들던 춘다라는 소년이 부처님께 달려와서 알렸다. 아난다는 춘다로부터 사리푸트라가 입멸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춘다입니다. 마가다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사리푸트라 존자가 입멸했다고 합니다. 존자의 발우와 가사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난다야, 내가 벌써 가르치지 않았더냐?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해야 할 때가 온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난다야, 큰 나무에서는 가지 하나가 먼저 마르는 일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사리푸트라가 죽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난다야,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를 섬으로 하고 자기를 의지하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섬으로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구절의 ‘자기를 섬으로 하고 법을 섬으로 하라.’는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또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

신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의 죽음은 석가족의 멸망과 함께 부처님의 만년에 일어났던 가장 슬픈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셨다. 과거의 업력에 의한 과보는 피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치를 거스르려고 할 때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입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밧자국의 웃카체라라는 마을에 머무르고 계셨다. 갠지스강 근처에 있는 이 마을에서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를 모아놓고 포살 의식을 행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고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입멸한 이후로 이 집회는 텅빈 것 같구나. 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집회는 쓸쓸하기 그지없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두 제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아무리 무상을 깊이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도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셨던 모양이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는 하나 연배도 비슷했던 것 같고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어 일종의 우정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두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나서 부처님께서도 몹시 허전했던 것 같다. 해탈의 경지에 드신 부처님께서도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의 부재를 이렇게 섭섭해하셨으니 그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정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와의 만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예전에 아는 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수행처에 들어갔습니다. 무문관은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약속한 날까지 외부로 나오지 않고 작은 구멍으로 들여보내는 음식만 먹고 오직 홀로 수행만 하는 곳입니다.

그 스님은 너무나 수행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 단절된 채 오직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문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무문관에 들어간 지 보름째 되는 날 소리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미치겠다고, 정말로 죽을 지경으로 미치겠다고.

그 스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내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내 몸에서 생기는 느낌과 생각, 기억이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밖의 문제와 단절되면 마음이 평화롭고 조용해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좋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간지옥인데 쉬는 사이 없이 계속해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쉬는 사이 없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 또



한 무간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무간지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습관화된 내면의 느낌과 기억, 생각은 계속해서 스토퍼처럼 따라다니고,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지속적으

로 그 불안, 불편함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질려버린다고 합니다.

나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내 기억으로부터, 내 희망으로부터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고문하는 주범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의 고립을 원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의 구원을 찾게 되었다

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밖의 삶이 간절히 그리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면의 소리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괴롭게 하는 원인도 되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답을 주기도 합니다. 명상은 좀 더 가까이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전제적인 상황,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 조언은 다양한 분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주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 등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지 궁리해 보세요.

당장 해결책을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낼 힘과 깨달음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깨달음, 성장이 나의 진정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지혜로운 삶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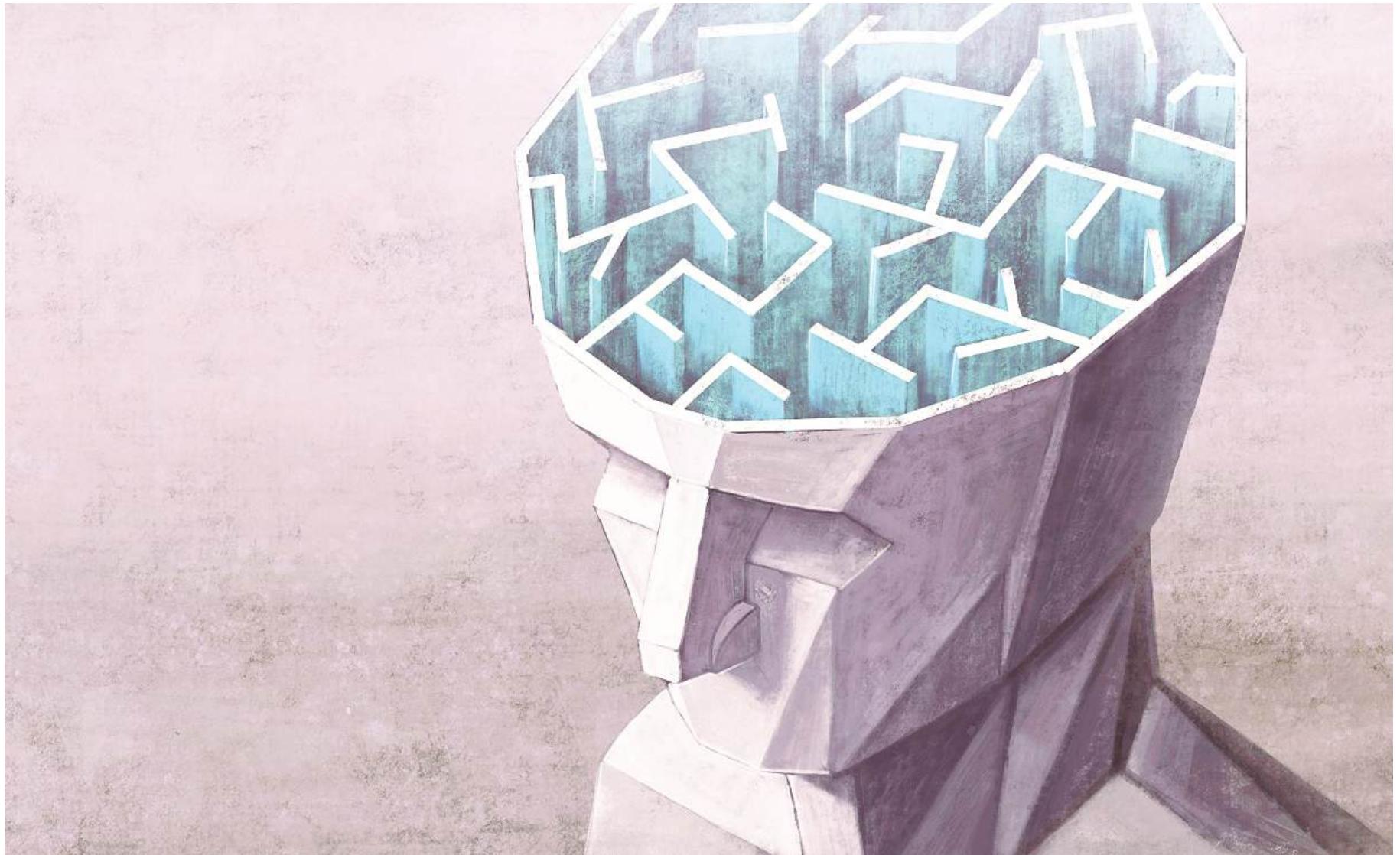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바람처럼 흘러보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무릇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잡보장경(雜寶藏經)』

메타인지와 마음챙김

- 메타인지에 대한 오해

자신을 과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메타인지에 대한 사람들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분 았에서는 메타인지를 마음챙김의 연 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사띠를 메타인지와 같은 의미로 개념화하고 있다. 하지만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타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에 심 각한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일반화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에서 바라본 메타인지의 방식

메타인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970년대에 발달심리학자인 존 플라벨(J. H. Flavell)이 창안한 용어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을 말한다. ‘상위인지’, ‘초인지’라고 도 한다. 간단히 말해 자기 성찰 능력이다. 자기 생각이나 지식에 대해 곧 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신 상태, 곧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정상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셨을 때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지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뛰어난 지성을 발휘한 것이다.” - 나 무위키

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인지능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 인지를 하위인지에, 이 객관

화 인지능력을 상위인지에 놓는다. 그런 객관화 인지능력을 상위의 개념에 놓고 보통의 인지능력을 하위의 개념에 놓아서, 객관화하는 능력 자체가 뛰어난 능력이고 상위의 개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 객관화가 진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을 아는 인지가 상위인지라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상위인지라고 하는 것이 더 자 기조절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상위인지에 자기조절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하위인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노와 같은 감정이나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상위인지가 언

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메타인지지를 계발하더라도 자신의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메타인지가 완전히 작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성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메타인지(상위인지) 방식

실제 마음에서 발생하는 메타인지의 방식

메타인지지를 번역하면 '상위인지' 혹은 '초인지'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상대인지' 혹은 '상대적 인지 (Relative Cognition)'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내면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이런 자아들은 각각 혹은

같이 대상을 인지한다. 이런 자아들이 서로 인지하는 것을 '상대인지', '상대적 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호 작용은 인지 행위에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대등하게 바라본다. 즉 내 안에 A, B, C라는 인지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A, B가 B, C가 C 자신을 볼 수는 없지만, A는 B, C를 보고, B는 A, C를 보고, C는 A, B를 볼 수 있다. 각각의 인지가 자신을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바라볼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A, B, C 모두가 자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되기는 하지만 그 성찰하는 자아가 우월한 자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성찰은 자기 객관화 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자기 객관

화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의 자아를 다른 하나의 자아가 바라볼 수 있을 뿐, 그 바라보는 자아도 '나'이기 때문에 '주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서로 바라보면서 인지하는 힘을 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 힘을 강화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메타인지지는 요즘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행하는 개념이다. 어떤 사람들은 메타인지지를 마음챙김과 동격으로 놓기도 한다. 특히 명상하는 심리학 분야의 사람들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인지는 교육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메타인지를 계발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큰 관계가 없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암기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사실 공부는 선천적으로 태고난 두뇌에 의해 좌우된다. 메타인지지를 아무리 계발한다고 해도 암기능력 없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은 학원가나 학습지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무언가 상품성을 만들기 위해 이 개념을 끌어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작용하는
메타인지(상대인지) 방식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착한 일

담
마
빠
다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생에서도 기뻐하고
저 생에서도 기뻐한다.
스스로 행한 착한 일을 보면
복을 받으며 더 즐거워한다.

착한 일은
자신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며,
남들도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일입니다.
재물이 넉넉하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인재를 키우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지식을 갈고닦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고,
모르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기뻐하면
그것도 착한 일이 되어 복이 됩니다.
착한 일은 자신도 기쁘게 하고
남들도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고
전
속
으
로
당고지화黨錮之禍

착한 사람이 왜 먼저 죽어야 하나

참언이 성행하여 선인을 해칠 때에는
성인이라도 잠시 머리를 숙여야 하는 법

苟譏說之殄行兮 雖聖智而低眉
구참설지진행혜 수성지이저미

- 이곡(李穀, 1298~1351) <가정집(稼亭集)>
제1권 '당고(黨錮)의 화를 슬퍼하며 지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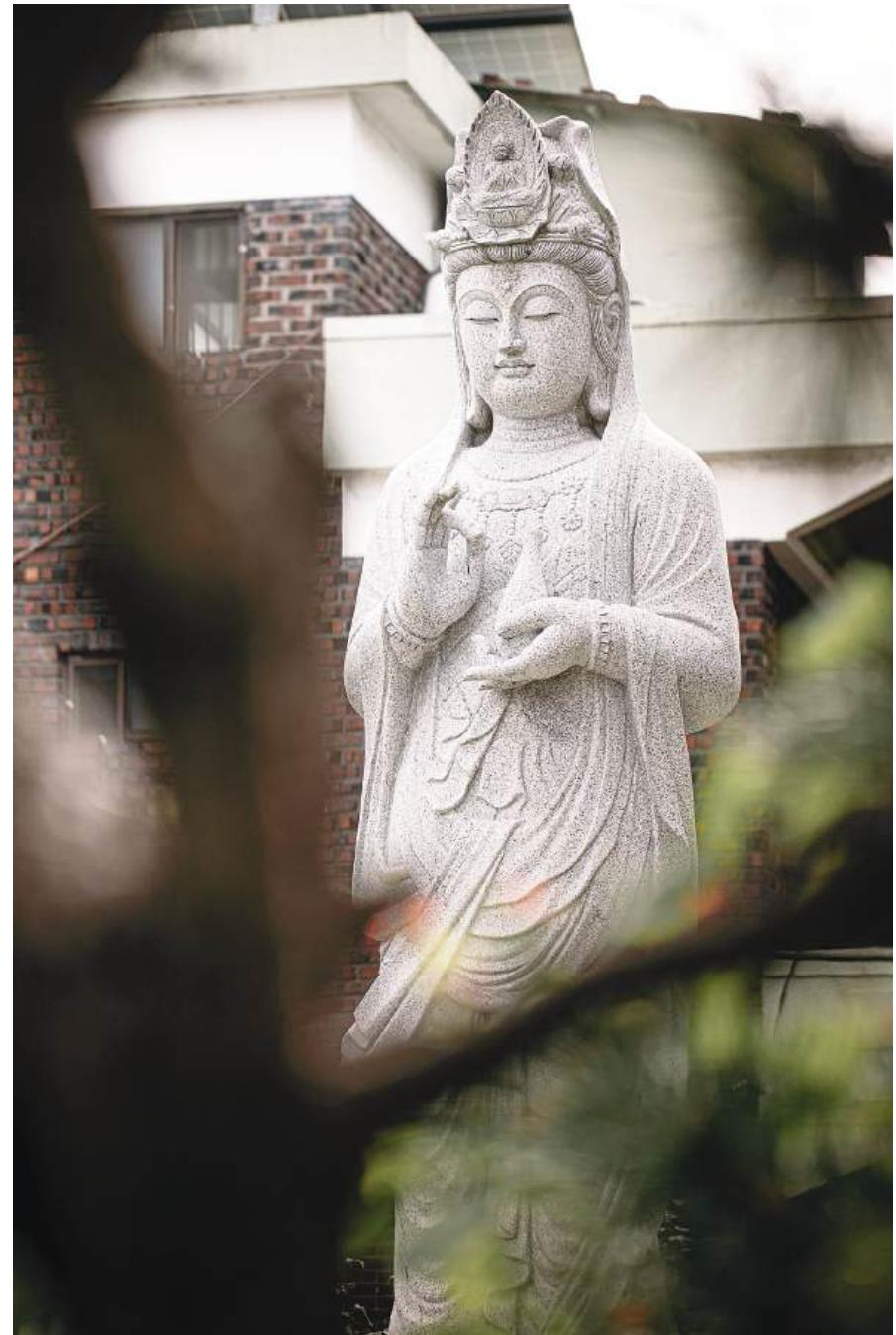
“모진 사람이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주위에서 불의와 불공평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과 관계없이 착한 사람이 피해 보고, 무자비하거나 탐욕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가령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서 정리해고하거나 명예퇴직을 받을 때도 대개 착한 사람부터 잘리거나 착한 사람이 먼저 사직서를 낸다. 이기적이고 염치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심지어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는 승진까지 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솔수에 능하고 자기만의 잇속을 쟁기는 모사꾼들이 권력을 잡는 걸 자주 본다.

고려 후기의 학자로 <죽부인전> 등을 저술한 가정 이곡(李穀) 선생(1298~1351)은 착한 사람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환관의 손에 무참히 화를 당한 것을 애도하면서 ‘당고(黨錮)의 화를 슬퍼하며’라는 글을 지었다. 가정 선생은 “참언이 성행하여 선인을 해칠 때에는 성인이라도 잠시 머리를 숙여야 하는 법”이라며, 혹시 난세를 만나더라도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현명할 일이라고 설파했다.

“
세상 어지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살아내야.
그것 또한
착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많은 흄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로 꼽힌다. 이런 제도를 갖춘 현대 사회에서조차 착한 사람이 빨리 도태되는 이유는 뭘까. 21세기에도 여전히 무자비하고 물엄치한 사람이 끝까지 생존하는 건 제도와 관계없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선악과 무관한 생존 경쟁력이 따로 새겨져 있기 때문일까.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 따위로는 고칠 수 없는 필연일까.



사진=진주 화음사 관세음보살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더욱 좋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들이 살아남아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선한 삶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지만, 인내심을 갖고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일 또한 고귀하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는 게 한때 비루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살아내는 것 또한 착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선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

출처=한국고전번역원

이상규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명구 부문 당선자

찰라의 깨달음

모두가 꿈꾼다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운명의 순간은 번갯불처럼 다가온다. 사람과의 만남, 스승의 가르침, 책 속의 한 문장, 부질없는 농담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변하고 그 순간의 충격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히브리의 신비주의자들은 그 순간을 일러 알레프(Aleph)라고 표현했다. 알레프란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첫 글자이니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때이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징이다. 세상일의 시작과 끝이다. 더러는 속박된 자아를 벗어나는 마음의 관문을 말하기도 한다.

어찌 됐든 하잘것없이 사소한 일이라도 필생의 알레프를 담을 수 있다. 뉴턴에게는 떨어지는 사과를 본 순간이었을 것이고, 봇다는 짙은 어둠 속에서 샛별을 보며 알레프의 순간을 맞았다. 세상의 작가들은 첫 문장을 쓰며 운명을 만들어간다. 연인에게는 첫 만남의 불꽃이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알레프의 순간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두려운 나머지 일상으로 발길을 돌려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득 다가온 충격으로 오히려 갈피를 잃고 삶은 혼돈 속에서 헤맬 수도 있다.

평생 그 돈오(頓悟)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텔레비전 신파극에 의지하여 희비애락(喜悲哀樂)의 감정을 소비하고, 아무 일 없는 듯 갈망을 숨긴 채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한탄할 수도 있겠다.

알레프 따위야 필요 없는 인생이 대부분이다. 파괴와 소멸, 망각이라는 시간의 힘을 거슬러 불멸의 명성으로 기억되는 이들은 대개 알레프



의 문턱을 넘었다. 자기 한계를 넘어 야 결국은 영겁(永劫)에 닿는 법이다. 알레프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변화의 세계로 들어설 기회를 준다. 스스로 변화하며 그 경험을 공유하고 궁극에는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 물질을 소비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 시들해진 애플의 혁신이나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미국 테사하라 농장처럼 기업의 방향이 약탈적 탐욕에 머물지 않는 일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청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2006년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가난한 어린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 때문에 병을 얻는 제3 세계의 현실. 그 참혹함이 마이코스키에게는 알레프의 순간이었다. 한 소년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이며 제한된 자선이지

만, 그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민속신발 디자인을 채용한 탐스 신발은 한 캘레를 사면 제3 세계의 소년들에게 똑같은 한 캘레의 신발을 전해준다.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 안에 누군가를 위한 신발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린 탐스(TOMS, Shoes for Tomorrow)라는 신발도 하나의 물건을 넘어 생산과 소비, 나눔의 형식을 만든 사례이다.

세상의 냉담함과 불공정한 현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우리이다.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나 막대한 자본을 가진 자, 또는 권력자가 신발 한 캘레 살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마음속에 작은 자비심의 불씨라도 간직한 이들이 자신의 신발을 사며 누군가의 신발값을 지급한다.

기업에 엄격하게 강요되는 선한 경영은 벽에 걸어두고 가끔 쳐다보는

구호와 같은 눈속임이다. 기업의 탐욕을 절제하라는 충고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 하지만 개인의 소비 활동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고, 자기 행위의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선량함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선의에 눈뜨면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탐스 신발을 사 신지는 않을지라도 자본의 무절제한 탐욕을 혐오하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며, 가끔은 이상을 위해 마음의 창을 여는 이라면 그 신발을 신을 것이다.

마이코스키의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그는 신발을 파는 일을 넘어 인간 본성에 내재한 선의를 일깨웠다. 그는 잘 팔리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사업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중요하다. 창업자에게 전하는 마이코스키의 조언은 의미 있다.

“사업가가 되기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모두가 흘려보내는 각성(覺醒)의 순간에 눈을 뜨자. 그 각성이 백일몽처럼 흘어지지 않도록 주목하자. 아주 작은 일, 평범한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하여 모두가 알레프의 문턱을 넘고 서로를 이상(理想)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자. 모두가 꿈꾼다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종자〉 외

프로도 이야기

책상 구석에 카카오 인형이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누군가에게 커다란 꽂다발을 바치고 있다. 인형의 이름은 '프로도'라고 한다. 프로도가 전하는 남과 여의 에피소드가 재미 있어 책상 위에 두고 가끔 먼지를 털어준다.

프로도를 앞에서 보면 땀방울 맷한 얼굴이 보인다. 옆에서 보면 장미다발이 보인다. 위에서 보면 두 귀가 보인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뒤통수와 엉덩이가 보인다. 그렇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자신의 시선이 닿는 부분만 볼 뿐이다. 아무리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도 프로도의 전체 모습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아차렸을 때

너무도 놀라웠다. 전체 모습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단지 나의 시선이 닿는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어떤 모습이 진짜 프로도인가. 진짜라면 각각의 시각에서 보이는 모습 전부가 진짜이고, 가짜라면 그 모습 전부가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첫 수련 때였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고개를 조금 갸우뚱했다. 그런데 수련을 거듭하며 그 말씀을 음미해 볼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전모를 결코 알 수 없는 이 무한 우주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 관점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프로도라는 작은 우주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드러내듯이 말이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 옳은 관점인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수많은 관점 중에서 우리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관점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관점을 정견(正見)이라고 한다.

수련생이 된 지 여덟 해가 지났다. 정견을 이해하고 거듭 그 관점으로 존재계를 바라본다. 모순투성이였던 세계가 본래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쥬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미완성의 아름다움



미완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쉽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미완성이기에 때로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곡의 왕'이라 불리며 <마왕>, <송어> 등을 작곡했던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는 미완성 작품을 몇 납겼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교향곡 제8번 b 단조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지만, 슈베르트가 25세에 작곡을 시작한 미완성 교향곡은 3악장 중간에서 끝납니다.

작곡을 시작하고 요절할 때까지 6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사이 다른 걸작품도 많이 완성한 슈베르트가 이 곡을 왜 끝까지 미완성으로 남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완전한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자라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완성되고 완전한 것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빈터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그 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통해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11.12.〉

“그 목걸이 가짜였어요”

허상은 분별심 때문에 생기는 것

물건을 사면 담아주는 쇼핑백을 명품 브랜드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작품이 떠올랐다.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마틸드라는 부인 때문에 생긴 사건이 주요 내용이다. 그녀는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부인에게 건넸다. 남편은 아내가 무척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으스대며 초대장을 내밀었지만 부인은 시무룩하였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투덜댔다. 남편은 모처럼 비싼 옷을 사주었다. 그런데 부인은 짜증을 냈다. 이번에는 보석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고민하다가 부잣집 친구의 목걸이를 빌렸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마틸드는 기분이 좋아졌다. 부부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없어졌다. 부부는 파티장으로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를 찾지 못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빛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목걸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부부는 빛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하였다. 마틸드는 막 노동도 해야 했다. 빛을 다 갚은 후에야 마틸드는 목걸이 주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그 목걸이 가짜였어요. 500프랑밖에 안 해요.”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마틸드가 파티에 가기 위해 구매한 옷값이 400프랑이니 마틸드 부부가 감당하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다. 명품을 좋아했던 부인이 치



른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명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여유가 없어도 카드로 일단 명품을 사고 카드 빚에 시달리다가 월급을 압류당하여 결국 직장을 잃은 사람 등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모파상은 왜 목걸이를 가짜로 설정하였을까? 요즘도 너무 큰 디아몬드는 금고에 넣어두고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치장한다고 들었

다. 모파상은 인간의 허영심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명품을 사서 치장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비싼 돈을 들여서 명품을 구매해도 그것이 사람 자체를 멋있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케팅 학자들은 “명품은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 즉 이미지에 있다”라고 하면서 수공업 시대에는 물건이 없어서 상품 자체에

가치가 있었지만,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상품이 많아지자 소비자는 이미지의 가치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명품 중의 명품, 즉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길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을 미성숙한 존재로 하락시키는 일종의 상술이다.

마틸드가 다른 사람과 달리 검소한 모습으로 파티에 갔다면 공무원 부인답다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당당하다. 그 당당함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된다. 치장이 아닌 참모습이 명품이다. 그래서 명품은 사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였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논쟁이 벌어진다. 허상은 이렇듯 분별심 때문에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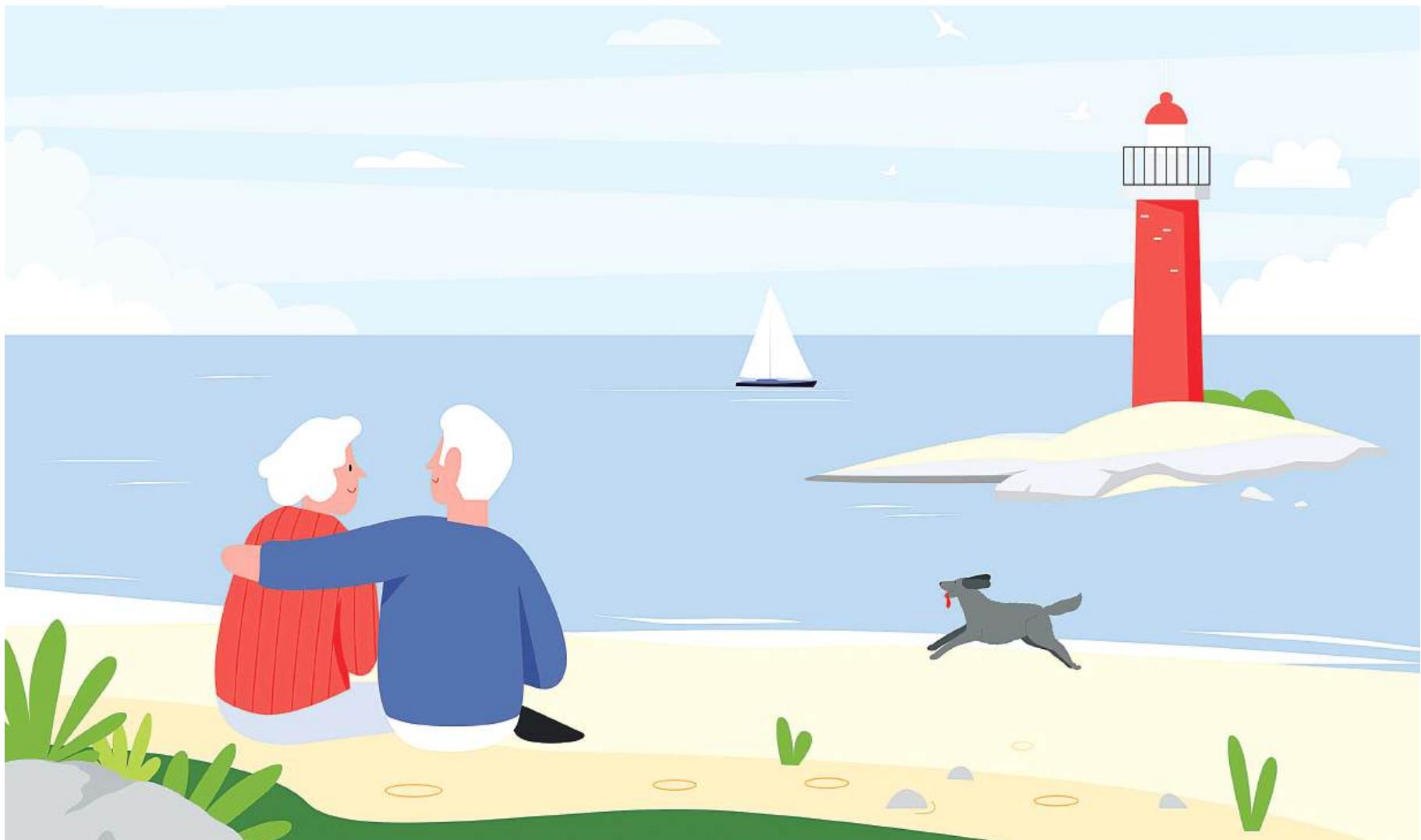
소설 <목걸이>의 마틸드는 친구가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의 목걸이를 진품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곧 허상이다. 목걸이 자체가 귀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재력이 부러웠다. 이렇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이제부터 명품을 사는 대신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고귀한 명품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밝히는 등대

‘한 생각, 깨끗한 마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보배



콩나물을 씻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콩나물이 콩이었을 때, 그 콩은 콩나물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 어쩌면 땅에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나 주렁주렁 실한 콩고투리를 맺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콩나물이나 두부, 고추장, 된장이 되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는 게 콩의 소명 중 하나일 테지만 그래도 더 많은 콩을 세상에 퍼뜨리고 싶었던 콩이라면 그 콩에도 자신의 의지를 다질 좌우명(座右銘)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콩고투리 속에서 오순도순 머리를 맞대고 살던 다정한 가족이라면 가훈 같은 것도 있었을 것도 같고.

실없이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되고 싶었던

그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데, 꿈? 별로 없었다. 산이 높아서 해도 늦게 뜯다는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꿈이니 희망이니 하는 건 뜬구름보다도 못한 면 나라 이야기였다. 넓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내게는, 하늘만 빼꼼한 우리 동네가 전부인 줄 아는 내게는 하루하루가 봄날이고 모두가 이웃사촌이었다. 안온(安穩)한 우물 안에서 텁벙거리는 개구리에게 곧 마주하게 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헤쳐가야 할 격랑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일도, 사람도 별로 없었다.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라는 걸 조사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대부분일 만큼 아이들의 꿈은 원대했지만 허황했다. 선거벽보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높은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찍었을 뿐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 주는 이도 없었다. 선생님이 몇 차례 언성을 높일 때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간신히 입을 떼는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 역시 순경이나 멘서기 정도였다. 왜? 본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 궁리 끝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 역시 본 게 그 것뿐이었으므로. 천둥벌거숭이라서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그때 만약 이러저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에게 꿈다운 꿈이 있었더라면, 그 꿈이 뿌리내려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열매도 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그 무엇

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다. 1등을 놓치지 않으며 현재 소리를 듣던 누구는 대학교수쯤은 되고도 남았을 테고, 별자리 달달 외우던 누구는 우주과학자가 됐을 테고, 발에 공이 달린 듯 운동장을 주름잡던 누구는 손흥민 못지않은 축구선수가 됐을 테고, 미스코리아 뺨치게 예쁘고 똑똑한 누구는 멋진 배우로 이름을 떨치고 있을 테고, 언변 좋고 사람 끌어들이는 재주가 뛰어났던 누구는 정치판에서 욕끼나 먹고 있을 거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다양한 길은 열려 있었을 것이다. 하얀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얼마나 많고, 쓸 수 있는 글은 또 얼마나 많았

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같은 도화지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 ‘애국 애족’, ‘근면 성실’, ‘협동 단결’처럼 천편일률적인 교훈이나 ‘슬기롭고 아름답게’, ‘참되고 씩씩하게’, ‘튼튼하고 부지런하게’ 같은 추상적인 급훈으로는 새롭게 그리거나 써낼 것 또한 별로 없었다. 차라리 ‘맨땅에 헤딩하면 머리 깨진다’, ‘지금 놀면 손발이 고생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 된다’ 이런 농담 같은 말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물 안 개구리들에게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생을 소시민으로 살아온 우리는 반백이 된 머리를 말없이 끄덕이곤 했다. 일찍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라는 명쾌한(!) 좌우명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뭔가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허튼 웃음과 함께 말이다.

사전에서는 좌우명을 일러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라고 풀이한다. 좌우명의 우 자가 오른쪽을 가리키는 우(右) 자인 터라 좌 자가 왼쪽 좌(左) 자인가도 싶지만, 좌우명의 좌는 앉을 좌(座) 자를, 명 자는 새길 명(銘) 자를 쓴다. 중국 후한의 학자 최원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신념을 책상 오른쪽에 새겨두고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퇴계 이황 선생 역시 ‘사무사(思無邪, 간사한 생각을 품지 마라), 무자기(毋自欺, 자신을 속이지 마라), 무불경(毋不敬,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기독(慎其獨, 혼자 있을 때도 행동을 바로 하라)’이라는 네 가지 좌우명을 직접 써서 벽에 걸어두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평생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한다. 조선의 실학자 이자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1737~1805) 선생도 병풍에다가 ‘인순고식 구차미봉(因循姑息 苛且彌縫)’이라는 글을 써서 낡은 관습이

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쫓으려는 태도를 스스로 경계했고, 아들에게도 ‘천하만사가 이 여덟 글자로부터 잘못된다.’라는 고언을 남겼다고 한다.

좌우명을 품는다고 하여 콩이 저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하지만 사람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인생 여정이 바뀌기도 하며, 타인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023년 자기 재산 대부분인 1조 7,000억 원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의 좌우명 ‘빈손으로 와, 손에 가득 채운 뒤,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공수래, 만수유, 공수거(空手來, 滿手有, 空手去)’라는 좌우명이 좋은 예다. 그는 일찍이 장학 재단을 만들어 매년 1만 2,000여 명에게 23년간 2,70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기업인이다. 자신에게는 근검절약으로, 인재 양성에는 아낌없는 지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그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순환과 나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고(故)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바이올리니스트)의 ‘연습을 하루 거르면 자신이 알고, 이를 빼지면 비평가가 알며,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다.’라는 좌우명도 후학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진정한 보배다. 일곱 가지 보배로 아무리 많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이것만 못하다. 보배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을 우리네 세속의 언어로 달리 해석해 보면 그게 곧 좌우명은 아닐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밝힐 등대 하나 찾아봐야겠다.

이 옥 경

수필가 · 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산책

미여지벵듸에서

오대혁

시인
문화평론가
국문학 박사

지는 걸 품는다는 건
고요하고 아늑한 일이다
섬은 미여지벵듸를 품어
저승길 가는 사람이
미움일랑 녹나무에 걸고
원한일랑 종가시나무에 걸고
흰나비 되어 너울너울
저승으로 날아간다

져버린 꽃을 품는다는 건
삶이 죽음과 함께하는 일이다
섬은 미여지벵듸를 품어
오름 같은 봉분들
숭숭 뚫린 검은 돌로 산담 어우러져
눈 내리면 흰빛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삶이
죽음을 품는 까닭이다

* 미여지벵듸: 제주에서 말하는, 저승으로 가는 사람이 건넌다는 허허벌판

이광수의 '어디서 오셨나?'

어디서 오셨나?

이광수

우리 애기 어디서 오셨나?
 저기 저기 별에서 오셨네.
 이 세상을 구경하랴고
 너흘너흘 날아오셨네.

생소한 이 세상에 누구를
 찾아, 찾아 별에서 오셨나?
 엄마 아빠 찾아 오셨네
 우리 집에 귀한 손님.



부모 찾아 별나라에서 날아온 귀한 손님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1892~1950)라면, 소설 <무정(無情)>, <유정(有情)>이나 <흙>, <사랑> 등을 떠올린다. 춘원은 우리의 신문학을 열었고, 소설 문학을 열었던 선구자다. 그러나 춘원은 소설만 쓴 것이 아니다. <이광수 전집>(1962, 삼중당) 등 춘원 문학 전체를 살피면, 많은 작품 중에는 단권으로 엮은 시집이 있고, 시작품의 상당 수가 어린이 독자에게 주는 동시임이 밝혀졌다.

춘원 연구가로 춘원의 자서전 <나의 일생> 등을 편찬한 한국 인물전기학회 회장이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최종고 시인이 춘원의 저서에서 발굴한 동시 50편을 <아동문학평론>지 2014년 겨울호에 논문으로 밝힌 바 있다. 그중의 하나가 <어디서 오셨나?>이다.

신비감을 주는 이 시작품은 불심으로 쓴 것이다. 하나의 인생이 인연의 힘으로 여러 세계를 옮겨 다니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춘원의 불심이 놀라웠던 것은 그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 법회 시간에 이찬우 곡으로 불리는 <청법가>가 춘원 이광수가 작사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짐작이 된다. 독립운동가요, 동국역경원 창설자였던 선지식 운허(耘虛, 1892~1980) 대종사가 동갑의 족형이었고, 춘원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시작품을 살피면 대화법으로 진행되는 시의 첫 행에서 화자가 아기에게 묻고 있다. “우리 애기 어디서 오셨나?” 하고, 아기보살에게 존칭의 대화를 건다. 그러던 화자는 곧 아기가 온 곳을 인정한다. “저기 저기 별에서 오셨네.”하고.

불교의 우주관은 현대 천문학 이전에 수많은 별나라를 인정하고 있었다. 하나의 일월을 가진 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소천세계다. 소천세계 1000개가 모임인 것이 중천세계이며, 중천세계 1000개가 모임인 것이 대천세계다.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를 아울러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불교의 윤회사상은 이 삼천대천세계의 별나라마다, 인간의 키가 다르고 수명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별세계를 옮겨 다니는 것이 윤회다. 그러므로 애기가 다른 별 세계에서 온 것이 틀리지 않는다.

이 시에는 시적인 묘미를 곁들여 “이 세상 구경하려고, 너흘너흘 날아오셨군” 하고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있다. 그 먼 별나라에서 나비처럼, 새처럼 너흘너흘 날아왔단다. 얼마나 귀엽고, 재미의 맛이 나는 표현인가.

그러다가 화자는 다시 묻는다. “낯선 이 세상에 누구를 찾아 그 먼 별에서 날아오셨나….” 화자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한다. “엄마 아빠 찾아오셨네, 우리 귀한 손님이.” 아빠, 엄마를 찾아서 날아왔단다. 그렇다면 아가는 나비 날개, 참새 날개 같은 작고 귀여운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하고, 부르며 날아왔을 게 아닌가.

아기는 이 세상 엄마 아빠를 찾아 저 먼 별나라에서 예쁜 날개로 날아온 귀한 손님이다! 동경 유학 시절이던 1919년에 ‘2·8 독립 선언서’를 기초했던 춘원, 상해로 망명 후 임시정부 일원으로 ‘독립신문’ 사장으로 있었던 춘원, 귀국 후 언론계의 중진으로 있었으며,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감옥살이했던 춘원이다. 여기에다 어린이를 위해 적지 않은 동시 작품을 남겨준 고마움이 있다.

신현득

아동문학가, 시인

까치밥과 감꼭지

딸꾹질과 트림, 구토 치료의 약성^{藥性}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

보통 시골집에서는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를 키운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나무, 앵두나무 등이 흔했고, 내가 살던 남녘에서는 종종 무화과나무도 키웠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그 외에 비파나무가 있었고, 집 뒤에는 토종화된 보리수나무도 있었다. 감나무도 단감나무, 팽감나무뿐만 아니라 뾰은 감인 떼바리감나무도 있었다.

봄에는 앵두와 보리수 열매를 따먹었고, 여름이 다가오면 잘 익은 단감부터 골라서 따먹었다. 단감나무에 올라가 보면 햇빛이 잘 드는 남쪽 방향, 높은 곳의 감이 가장 먼저 익었고, 더 달았다.

떫은 감은 여름이 되어 크기가 웬만히 자랐을 때 바람에 감이 떨어지면 그것을 물을 담은 항아리에 넣어 두었다. 감을 3~5일쯤 담가 두면 떫은 맛이 가시고 단맛이 나기 시작했다. 여름에 개울가에 나가 온종일 놀다가 출출해지면, 집에 와서 항아리 속에 담가 둔 감을 한두 개 꺼내 먹곤 했다.

여름이 깊어지면 무화과가 농익기 시작한다. 무성한 무화과잎 사이를 잘 뒤져서 꿀이 흐를 정도로 잘 익은 무화과를 찾아 먹으면 그 맛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기 어렵다. 단, 까치나 새보다 잘 익은 무화과를 먼저 찾어야 한다.

팽감나무는 열매가 작다. 그래서 물에 우려서는 먹을 것이 없었다. 가을이 되어 약간 불이 붉은 팽감을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서 다락에 넣어 두었다. 이 팽감이 겨울이 되면 하나둘 흥시가 되어 긴 겨울밤에 먹을 간식으로 그만이었다.

단감은 가을이 오기 전에 수확을 끝냈고, 가들이 깊어져서 수확하는 것은 떼바리감과 팽감이었다. 기다란 대나무 작대기 끝을 집게처럼 만들



Photo by Marko Sun@Unsplash

어 높은 곳에 달린 감을 가지째 꺾어서 땠다. 이 감으로 곶감도 만들고 시원한 곳에 두어 흥시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시골에서는 감을 팔 때 나무에 달린 것을 모두 따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곳에 달린 감을 대여섯 개 이상 남겨 두곤 했다. 까치밥이다. 감이 익어 흥시가 되면 까치 같은 새가 날아와서 감을 쪼아먹곤 했다.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 감나무 꼭대기에 몇 개씩 남은 까치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잎이 거의 떨어져 나목이 된 감나무에 높이 매달린 붉은 감은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전령이기도 하고, 추운 겨울을 새와 사람 모두 함께 잘 이겨내자는 평화의 메신저이기도 하다.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탄닌, 칼륨, 폴리페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폴리페놀은 노화 방지와

**감꼭지에는
심한 딸꾹질과 트림,
구토를 치료할
약성이 숨겨져 있다**

염증 완화에 이바지한다.

감에는 그 외에도 일반인이 잘 모르는 비밀이 있다. 감꼭지가 가지고 있는 약성이다. 감꼭지는 한약재로 쓰일 때는 시체(柿蒂)로 불린다. <본초구진(本草求眞)>에 보면 “역상승한 기를 내린다. 심한 트림, 구토를 멎게 한다”, “맛은 쓰고 뾰으며 성질은 평하다”라고 되어 있다. 최근 과학 기술로 분석하면 감꼭지는 여러 가지 정유 성분과 프럭토스, 탄닌 등을 함유하고 있다.

환자 중에 4~5일 동안 딸꾹질이 그치지 않아 내원한 일흔 중반쯤 되신 남자분이 있었다. 어릴 때 누구든 딸꾹질로 상당히 불편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런 딸꾹질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면 아주 괴롭다. 시체탕(柿蒂湯)을 처방하여 전치하였다. 시체탕은 감꼭지가 주 약재이고 정향과 생강을 보조 재료로 하여 구성된다. 감꼭지에 심한 딸꾹질과 트림, 구토를 치료할 약성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선현의 지혜가 놀랍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인 감이 새와 사람을 모두 풍요롭게 한다면, 가을 하늘 높이 매달린 까치밥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만든 정겨움이다.

정 은 철

나무와숲 한의원 원장

강원 태백 함백산

설산 고도에서, 천년의 시간을 만나다



발목 깊이 빠지는 눈길과 나뭇가지마다 수북이 쌓인 눈을 헤치며 다다른 함백산 기원단.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원을 빌던 곳이다.



함백산 정상.

- 걷는 구간 : 만항재~창옥봉~선수촌 갈림길~함백산~중함백~샘터사거리~적조암 갈림길~적조암 입구~정암사
- 걷는 거리 : 9km
- 소요 시간 : 4시간
- 걷기 포인트 : 눈 덮인 함백산 주목을 보며 걷는 길
- 난이도 : 중
- 출발지 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15-3 만항재

하늘이 칠흑같이 깁깝하다. 아직 여명조차 들지 않은 이른 새벽, 택시를 타고 만항재로 향했다. 온통 하얀 눈이 쌓인 산에 첫발을 디디려 새벽 다섯 시에 나선 길, 만항재 오르는 길은 벌써 염화칼슘을 뿐이고 눈 치우는 차가 지나간다. 염화칼슘과 섞여 아직 녹지 않고 부석대는 눈길을 따라 택시는 살금살금 눈 내린 만항재로 올랐다.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 1,330m에 있다. 영월에서 삼척까지 걷는 운탄고도의 기준이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운탄고도의 이름도 ‘운탄고도 1330’이다. 즉, 만항재가 운탄고도의 좌표가 되는 셈이다.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기 위해 고지대에 만든 길이다. 과거 산업화의 침병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고, 그 길은 걷는 이들의 차지가 되었다.

별빛이 닿지 않은 새벽, 만항재에 오르다.

눈길에 내려앉은 박명(薄明)은 숨을 죽인 호수처럼 잔잔했다. 새벽 여섯 시, 발목을 파고드는 눈의 속삭임 속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눈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막 쌓인 눈의 부드러움에 몸은 깃털처럼 더욱 가벼워졌다. 나무들은 무거운 눈을 엎어 지붕을 이룬 채 부리질 듯 휘었다. 걷다가 스치는 기척마다 소리를 내며 흰 숨결을 쏟아냈다. 산을 오르면서도 도무지 힘든 줄 모르겠다. 내리는 눈이 길동무가 되어 발걸음마다 환호를 보탰기 때문이다.

함백산 기원단에서 올린 기도

날이 밝자 산과 하늘의 경계조차 순백으로 온 천지가 하얗다. 발목 깊이 빠지는 눈길, 나뭇가지마다 수북

이 쌓인 눈을 헤치며 가니 시간이 더디다. 창옥봉을 지나 기원단(祈願壇)에 이르자 함백산은 내내 구름에 가려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비로소 구름 틈새로 살짝살짝 얼굴을 보여주곤 했다.

먼 옛날 백성들이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원을 빌던 그 제단 위에 싸간 음식을 정성스레 올렸다. 내가 아는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했다. 온전히 하얀 세상에 올린 소망은 함백산을 넘어 저 하늘에도 닿으리라.

너덜지대를 지나며 가파르게 함백산을 오른다. 거친 숨소리로 힘겹게 내딛는 걸음은 정상에 다가설수록 기대를 부풀게 한다. 두꺼운 겉옷은 땀이 차올라 귀찮다. 가파른 산길을 턱밑까지 오른 숨을 몰아쉬고 오르니 정상이다.

온통 희어서 ‘함백(咸白)’이던가. 사



함백산 설경.

람들이 눈 내린 함백산을 겨울 산의 유품으로 치는 이유가 이름 안에 포함된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소백과 태백의 모든 것을 가진 산이 함백이라 했는데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두보가 태산에 올라 뭇 산이 밟아 래 있음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기분 이리라.

會當凌絕頂 一覽衆山小(회당릉절 정 일람중산소)

내 반드시 정상에 올라 뭇 산들의 자그마함을 굽어보리라!
- 두보(杜甫)의 <망악(望岳)>

주목, 눈꽃이 피다

바람은 오랫동안 정상에 서 있게 하지 않는다. 땀 찼던 등골은 어느새 식어 다시 중함백산을 향해 길을 잡았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朱木)은 함백산을 넘으면서부터 가득하다. 살아서 웅장한 태를 보였을 주목은 죽어 고목이 되어도 천년을 단단한 모습으로 반긴다. 비틀어지고 속이 텅 비었어도 도도한 시간을 함께했을 벽찬 광경에 가슴이 메어온다. 아주 먼 옛적 어느

순간, 선인은 같은 나무를 똑같은 감정으로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랜 풍상의 세월을 버틴 주목에 경의를 표한다.

주목은 중함백산으로 가는 내내 온 산에 가득하다. 태백산의 주목이 유명하다지만 함백산의 주목에 비하면 덜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무의 크기도 그렇거니와 군락을 이루어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길목을 지키며 걷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모습은 다른 곳의 주목과 비교를 불허한다. 특히 이렇게 하얀 눈을 가득 이고 눈꽃으로 피어난 주목은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천지가 눈에 갇히다

중함백을 넘었다. 일찍 출발해 아무도 없던 길은 벌써 마주 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데 점점 많아지니 일찍 출발해 오롯이 함백산 설화(雪花)를 먼저 본 것이 다행이다.

샘터삼거리다. 계속해 나가면 은대봉을 넘어 두문동재로 가는 길이다. 두문동재를 넘으면 야생화가 지천인 분주령이고 금대봉인데 지금은 겨울이기에 봄을 기약한다. 샘터삼거리에서 좌측 적조암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초반은 완만하게 내려가다 경사가 점점 급해진다. 아이젠을 착용했지만 미끄러운 눈길이라 조심스럽다. 발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자꾸 아이젠에 붙어 털어 내며 가니 더 힘이 든



함백산 정상 표석.

다. 적조암 삼거리를 지나 적조암 입구 차도까지 내려왔다. 아침에 오르던 차도다. 눈은 벌써 녹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다.

정암사로 향했다. 네 시가 넘어간다.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기에 서두르기로 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정암사 일주문을 들어섰다. 다리가 아파 육화정사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다가 적멸보궁과 수마노탑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정암사는 오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셔 놓은 곳이다.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월 법흥사, 그리고 이곳 정암사 적멸보궁까지를 오대 적멸보궁이라 부른다. 적멸보궁은 불전에 따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

만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을 봉안한 탑이 곧 범신불로 여겨져 적멸보궁 뒷산 중턱, 해발 약 1,200m 함백산 자락에 상주하고 있다. 바로 수마노탑(水瑪瑙塔)이다. 수마노탑은 신라 자장 율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마노석(瑪瑙石)으로 탑을 쌓아서 마노탑이라 한다. ‘수마노’는 불가의 보석인 마노(瑪瑙)에서 비롯된 말로, ‘수(水)’는 신비로운 물성을 가진 마노를 가리킨다. 이 탑은 일반적인 탑과 달리 벽돌을 쌓은 전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가공하여 쌓은 것으로, 모양이 정교하고 참 아름답다.

걷기를 마친 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오든 고요한 산사에서 짓눌린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만한 기쁨이 또 어찌 있을까.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출발해 마음껏 설화를 보고, 상상의 향을 느끼고, 만지고, 먹어 보는 오감의 걷기를 했다. 기원단에 올라 제사도 지내고 온통 희어서 함백인 함백산의 겨울도 제대로 만끽했다. 함백산에 봄, 여름, 가을에도 왔지만 역시 함백산은 겨울이 제격이었다. 주목에 가득한 눈꽃을 보고 싶다면 겨울 함백산을 추천한다.

최종희

박 성 기

자유 여행가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저서 <걷는자의 기쁨>



불교총지종 홍보 굿즈 공모전



- 공모 기간 : 2025. 11. 1^(토) ~ 12. 31^(수)

- 공모 심사 : 2026. 1. 1^(목) ~ 1. 12^(월)

- 공모 발표 2026. 1. 14.(수)
불교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 공모 시상 2026. 1. 15.(목)
신년하례법회(서울 총지사)
- 응모 자격 불교총지종 교도 및 불자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 공모 부문 불교총지종의 상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굿즈 제작
※ 예시 : 육합상 또는 본존 등을 디자인한 캐릭터, 소품, 기념품 등
- 시상 내역 총상금 100만원
- 문의 및 접수 방법 불교총지종 대표전화 02-522-1080
전국 사원 직접방문 또는 통리원 우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정기 마니연주회 합창단

단장 김은미

지휘자 김양희

피아노 이지선

합창 마니합창단

2025년 12월 24일(수) 3시 불교총지종 총지사 서원당